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웹 공개일: 2025. 07. 25.

일러두기

1. 본문 중 특정 자료를 언급할 시 한국영상자료원 소장자료 관리번호를 병기하였습니다. 병기된 관리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자료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와 한국영상자료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해제 글을 인용할 시 필자명 및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컬렉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와 한국영상자료원 소장자료 관리번호를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 예시] 한국영상자료원, 『컬렉션명』, 웹페이지 주소 (최종 확인일: 0000.00.00).

[해제] 한국적 이미지를 향한 장구한 여정

배수경 (영화연구자)

한국영화사에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남긴 촬영감독 정일성은 1992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총 3,007점(복본 제외)의 방대한 자료를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했다. 1,822장의 사진과 875권의 간행물, 120권의 시나리오, 그밖에 190점의 상패/트로피 · 기념/소장품 · 촬영 장비 등, 그가 거의 평생에 걸쳐 모아온 자료들이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으로 만들어졌다.

※ 컬렉션 구성과 규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고 뒤에 수록된 [부록] 참조

컬렉션에는 그가 영화계에서 보낸 고난의 시절과 영광의 순간들이 모두 담겨있다. 1950년대 열악한 세트 속 어설픈 이동차 위에서 흰 장갑을 끼고 카메라를 만지는 모습부터 1980년대 해외에서 렌트한 파나비전 카메라를 잡고 현장을 지휘하는 광경, 병마를 극복하고 자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며 투지를 불태우던 1990년대 초반의 현장 그리고 2000년대 턱시도 차림으로 칸국제영화제 레드 카펫에 선 모습까지, 기증된 사진을 슬쩍 보기만 해도 한국영화의 기술적, 위상적 변화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렇듯 그가 기증한 책과 시나리오, 사진과 기념물에는 긴 세월 영화계의 부침을 타고 넘은 그의 삶이 오롯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나 방대한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에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생애를 차근히 따라가는 것이다.

1. 영화 서적을 모은 공학도, 출생에서 영화계 입문까지

정일성은 도서, 잡지, 학위논문 등 총 875권의 간행물을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했다. 그중 도서와 잡지는 대부분 일본에서 출간된 영화 관련 전문서들이다.

1950년대 초중반, 공학도 정일성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마땅한 영화 교육 기관이 없던 시절,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 건너온 영화서적과 잡지들이었다. 정일성은 그 시절부터 모은 많은 도서를 기증했다. 1930년대에 출판된 영화촬영학 독본『日本映画叢書第三輯 映画撮影学読本 : 下巻 [일본영화총서 제3집 영화촬영학 독본: 하권]』(大日本映画協会, 1931; 도서, 관리번호 BFM012404_01)부터 1956년에 출판된 오즈 야스지로와 노다 코고의 시나리오 전집『日本シナリオ文学全集7: 小津安二郎 · 野田高梧 [일본시나리오문학전집7: 오즈 야스지로 · 노다 코고]』(理論社, 1956; 도서, 관리번호 BFM012422_01), 1950년대부터 모은 잡지『映畵評論 [영화평론]』과『映画技術 [영화기술]』, 1960년대부터 모은 잡지『キネマ旬報 [키네마준포]』 등으로, 이 서적들을 통해 정일성은 영화의 미학과 사조, 이론과 기술, 작가론, 해외 영화계의 흐름에 대한 갈증을 채워나갔다.

그가 일본어에 능숙했던 이유는 1929년 일본 동경에서 출생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중학 시절까지 일본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영화인이 된 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소개지였던 아오모리에서 지내는 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에 개안한 것이었다. 한국전쟁기 훈련소에서 본 어느 한 순간의 풍경에 반해 그 영상을 〈화녀 82〉(김기영, 1982)에서 재현해 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증언[1]도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유난한 감각을 증명한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자연과 공간, 빛에 대한 직관이 남달랐다. 해방 후에 조선으로 와 17세에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고, 이듬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해방공간 속 대학 캠퍼스에서 그는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귀환한 조선 학생들이 쓰는 다양한 언어들을 들을 수 있었다.

대학 재학 당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정일성은 장교로 입대했지만 수색 작전 중 부상을 입고 제대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 1951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하지만 공대생의 취업이 만무했던 전시, 그가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부산 미공보원 서고과의 서가 담당 직원이었다.

1) 이정아, 『2017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시리즈 생17-4 〈생애사〉 정일성』, 한국영상자료원, 2017년, 83쪽. "거의 가을 정도 되가는데, 무슨 유도화라는 나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동백하고. 유도화가. 그 꽃잎이 우리가 훈련하는 그 훈련소에 다 져서 이렇게 땅바닥에 유도화가 떨어져 있는데 노을이 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좁은 길이 말이죠. 한편은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가난해서 밥도 못 먹는데, 자연은 전쟁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그래서 먼 훗날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김기영 감독하고 〈화녀 82〉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걸 재현을 시켰다고 내가…생화는 아니지만 조화를 깔아놓고 역광으로 노을의 효과를 냈었는데 그때 봤던 것만큼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촬영은 했는데 쓰질 못했어요."



「자택: 정일성」(스틸; 관리번호 DST765366_03)
정일성의 자택 서재. 그의 뒤로 책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이 늘어서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기치 못하게 그의 진로가 결정되었다. 출장지 대구에서 우연히 만난 서울대 선배인 촬영감독 정인엽으로부터 대구 공군비행장에서 촬영 중이던 영화 〈출격명령〉(홍성기, 1954)의 촬영조수를 제안받았던 것이다. 그는 인기 배우 염매리가 출연한다는 말에 주저 없이 짐을 챙겨 대구로 향했고, 그렇게 영화계에 첫 발을 디뎠다. 그를 아끼던 미국인 공보원장은 영화 관련 서적을 일본에서 군용 소포로 가져와 그에게 보내주었다. 정일성은 그 중 20여 권이 남아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2] 이 책들 역시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 중 1930년대~50년대 도서 목록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2) 이정아, 위의 책, 88쪽; 90쪽.

2. 1950~60년대, 데뷔작과 모색기의 활동

정일성은 〈출격명령〉으로 영화계에 입문한 후, 김학성 촬영감독의 문하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촬영 현장의 기술과 관행을 익혔다. 그리고 1957년, 만 26세의 나이에 〈가거라 슬픔이여〉(조긍하)로 촬영감독 데뷔를 하게 된다.[3] 배우 최은희가 출연한 작품으로, 태양영화사의 창립작이다.

〈가거라 슬픔이여〉의 제작자는 해방 후 부산에 본부를 둔 태극도의 창시자 조철도의 셋째 아들 조청구로, 2천여만 환의 자금으로 태양영화사를 운영했다.[4] 1950년대 중후반, 입장세 면세 조치와 〈춘향전〉(이규환, 1955), 〈자유부인〉(한형모, 1956)과 같은 흥행작의 등장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던 시기의 일면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모든 촬영은 부산에서 진행되었고, 구형 아이모(Eyemo)나 파르보(Parvo) 카메라에 미군 트럭에서 떼어낸 24V 모터를 달아 영화를 찍던 시절에 당시 막 수입된 아리플렉스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었다.[5]

3) 〈가거라 슬픔이여〉(조긍하, 1957)의 전단에는 김진해가 촬영을, 정일성이 촬영보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일성은 언론의 주목을 받던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 작품을 본인의 데뷔작으로 언급해왔다. 〈가거라 슬픔이여〉 촬영 현장 사진에도 촬영감독의 위치에 있는 정일성의 모습이 보이고, 김진해의 필모그래피에는 〈가거라 슬픔이여〉 단 한 작품만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록상의 오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4) 「혹세의 사교 태극도의 정체」, 『동아일보』 1958.08.17., 5면.

5) 한국영화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면서 1956년 이후에는 아리플렉스 등의 카메라가 다량 수입되었다. 관이나 제작사뿐 아니라 한형모, 김형근, 안창복 등 개인도 삼성필름상회를 통해 아리플렉스를 수입하여 영화인들에게 대여했다. 김미현 외, 『한국영화기술사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2, 26쪽.; 「나의 젊음 나의 사랑- 영화촬영감독 정일성 (4) 태풍 '사라'도 못말린 열정」, 『경향신문』 1996.04.15., 31면.

1957년 여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지은 〈가거라 슬픔이여〉의 다방 세트는 태풍 아그네스가 불어닥쳐 이틀에 한 번꼴로 다시 지어야 했고 방파제 위에서 파도를 찍을 때는 파도에 휩쓸려가며 어렵게 촬영을 마쳤다. 〈가거라 슬픔이여〉는 1958년 초 부산에서 개봉했고 기마경찰이 동원될 만큼 극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6]

1961년, 정일성은 삼백 필의 말을 동원한 스펙타클 활극 〈군도〉(유심평, 1961)에 참여해 카메라를 잡았다.[7] 백제 의적단의 복수를 다룬 대서사극 〈군도〉는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실러(Friedrich Schiller)의 동명 희곡을 각색하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재일교포 촬영감독 유심평에게 연출과 촬영을 맡겨 국제적인 감각을 보여주려 한 작품이다.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의 사진을 보면, 대형 액션 장면 촬영을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가 투입되었고 그중 하나를 정일성이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액션이 등장하는 대형 몹신 촬영에 대한 정일성의 경험과 구력의 시작은 아마도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유심평 감독과의 인연은 2004년 〈취화선〉(임권택, 2002) 일본 개봉 당시까지 이어졌고, 홍보 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유심평과 함께 찍은 사진이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에 남아있다.

6) 「나의 젊음, 나의 사랑- 영화촬영감독 정일성 (4) 태풍 '사라'도 못 말린 열정」, 『경향신문』 1996.04.15., 31면. 기사에 따르면 〈가거라 슬픔이여〉는 당시 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1958년 최대 흥행작은 홍성기 감독의 〈별아 내가슴에〉(13만 7천 명)였고 외화 포함 흥행 상위 10위 작품들이 5, 6만 명대 이상의 관객 동원작이었다. 「58년도 관객동원수로 본 내외영화 베스트 텐」, 『동아일보』, 1958.12.24., 4면.

7) 「극영화 삼제, 분장 말타기 액숀」, 『동아일보』 1961.10.08., 4면.

한편 정일성은 1961년 11월, 〈구름이 흘어질 때〉(이봉래, 1961) 촬영을 마치고 아시아재단의 후원으로 일본에서 영화 연수를 받았다. 이때 그는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 감독 팀에 합류해 〈붉은 수염 赤ひげ〉(1965) 촬영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구로사와 아키라의 연출 방식, 세트 운용, 촬영 설계 등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가거라 슬픔이여〉 스태프 단체 회식: 최은희, 김영옥(아역) 등」 (스틸; 관리번호 DST770733_03)

태양영화사 사무실에 모여 회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배우와 스태프들.
최은희와 아역배우 김영옥, 정일성 등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 후경 벽에는 태양영화사(太洋映畵社) 로고가 그려진 플래그가 걸려있다.



「〈가거라 슬픔이여〉 촬영 현장: 정일성, 조긍하, 김영달 등」 (스틸; 관리번호 DST770775_03)

〈가거라 슬픔이여〉(조긍하, 1957) 세트 촬영 현장.
이동차 위에서 정일성이 아리플렉스 카메라를 잡고 있다.
흰 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정일성 뒤에 앉은 남성은 조긍하 감독,
이동차와 조명기 사이에 서 있는 남성은 김영달 조명기사이다.



「〈가거라 슬픔이여〉 촬영 현장: 최은희, 김웅 등」 (스틸; 관리번호 DST770680_03)
분이 역의 최은희가 일하는 그릴 식당으로 보이며, 해변에 지었다는 세트로 추정된다. 재수 역의 김웅이 분이 앞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촬영 중인 현장이다.



「〈가거라 슬픔이여〉 촬영 현장: 김웅, 정일성 등」 (스틸; 관리번호 DST770551_03)
부산 바닷가 촬영 현장. 왼쪽에 서 있는 배우(김웅)를 부감으로 촬영하기 위해 정일성이 카메라를 들고 밧줄에 매달려 있다.



「〈군도〉 촬영 현장(추정): 정일성 등(마적떼 신)」 (스틸; 관리번호 DST770789_03)
달리는 말을 찍기 위해 정일성이 바닥에 엎드려 핸드헬드로 촬영하고 있다.



「〈군도〉 촬영 현장(추정): 정일성 등」 (스틸; 관리번호 DST770790_03)
〈군도〉(유심평, 1961)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할 만큼 액션에 신경 쓴 작품이다.



「〈취화선〉 일본 개봉 사전 방문: 임권택, 다카노 에쓰코, 유심평, 정일성」
(스틸; 관리번호 DST765414_03)

〈취화선〉(임권택, 2002) 일본 홍보 방문 시에 찍은 기념사진.
왼쪽부터 임권택, 일본 도쿄 이와나미홀 총지배인 다카노 에쓰코(高野悦子), 유심평, 정일성.



「〈구름이 흩어질 때〉 스태프 단체사진: 정일성, 손희미자, 이봉래, 김승호 등」
(스틸; 관리번호 DST766970_03)

3. 1970년대 도약기의 활동

정일성은 1970년대부터 색과 톤, 구도와 움직임을 자유롭게 주조하며 작품에 걸맞는 영화 형식을 창출하는 촬영감독으로 도약했다. 김기영 감독과 함께한 두 작품을 예로 보자면, 〈화녀〉(1970)에서는 그로테스크한 긴장감을 강렬한 컬러로 구현했고, 〈파계〉(1974)에서는 회색 톤을 잘 살려 정치적 관계를 암시하는 소셜드라마로 읽힐 수 있도록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시각화했다.[8] 〈화녀〉는 24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해 그해 최고 흥행작이 되었고, 정일성은 제10회 대종상과 제8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현 백상예술대상), 제15회 부일영화상에서 촬영상을 수상했다.

그의 도약은 촬영에 대한 기술적 성취뿐 아니라 삶에 대한 철학이 함께 동반되어 만들어졌을 것이다. 1977년에는 유현목 감독이 연출한 문예영화 〈문〉을 촬영했는데, 〈문〉은 역사적 고통을 관통한 예술가의 내면을 '낙이불류 애이불비 樂而不流 哀而不悲'(즐거우면서 무절제하지 않고 슬프면서 비통하지 않은 중도)라는 동양적 사유로 담아낸 작품이다. '낙이불류 애이불비'는 정일성이 말한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촬영 철학에 닿아있다. 그는 화면을 안정적으로 잡은 뒤 한 번씩 비틀어보라는 조언을 후배에게 툭 던질 정도로, 절제 속의 창조를 추구했다.[9]

8) 그는 〈파계〉에서 회색 톤을 구현하기 위해 코닥이 아닌 페라니아 필름을 사용했다. 페라니아는 회색에 절묘한 흡입력이 있는 필름이었다. 정일성은 의도적으로 흐린 날이나 해뜨기 전과 후에 촬영하고 감광필터를 사용해 노출이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서 찍었으며, 전체적으로 회색톤에서 결정적인 하나의 색이 도드라지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정아, 앞의 책, 158~1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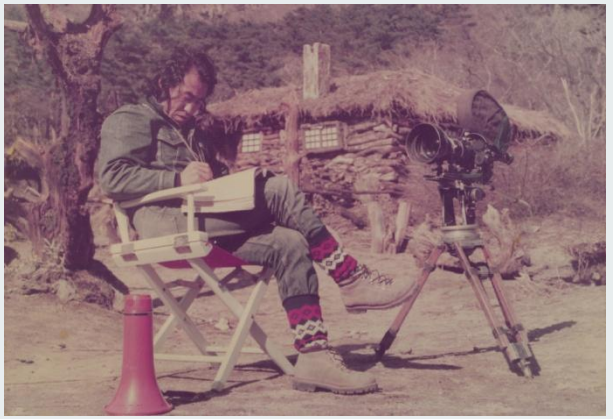
9) 「좋은 그림을 향한 끝없는 에너지- 박정훈 촬영감독이 말하는 〈취화선〉 〈하류인생〉 〈천년학〉」, 김경욱 외, 『격조의 예술가 파격의 모험가 정일성』, 부산국제영화제, 2019, 155쪽.

이 작품으로 정일성은 제23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1977)에서 촬영상을 수상했고, 제작사 삼영필름은 우수영화에 대한 보상으로 외화 수입쿼터를 받았으나 정작 개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기 외화쿼터가 부상으로 따라오는 우수영화 심사에서 문예영화가 유리하다보니 제작사의 각광을 받으며 제작되었으나 흥행 가능성은 떨어져 개봉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경우도 많았다.[10]

정일성과 유현목은 〈불꽃〉(1975)으로 촬영 현장에서 만나기 이전인 1970년도에 '소형영화동호회' 활동을 함께한 바 있다. 소형영화동호회는 유현목 감독을 대표로, 촬영감독 정일성, 시나리오 작가 이상현, 평론가 변인식, 감독 정일몽이 뜻을 같이해 출범했고, 28명의 영화인이 참여해 1970년 7월 23일, 미국문화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발족했다. 서구에 일던 8mm 단편영화 제작 붐과 언더그라운드 영화운동 등에 자극 받아 "취미로서의 영화 제작"과 "전위적 영화운동"을 취지로 삼은 아마추어 영화운동 단체였다. 대중 대상의 영화 강좌와 촬영대회, 야외 촬영회 등을 개최했는데, 정일성은 초창기 활동에 적극 참여해 화면 구도 작법이라는 주제로 직접 강연을 맡기도 했다.[11]

10) 「문예, 실화 영화 각광」, 『동아일보』 1977.09.19., 5면; 「문화77의 얼굴 6. 영화」, 『조선일보』 1977.12.17., 5면; 「14개 영화사들 고민, 방화 발붙일 극장이 없다」, 『동아일보』 1978.07.22., 5면 등.

11) 한국소형영화동호회 영화 강좌는 1970년 9월 24일 오후 6시, 한국일보사 9층 강당에서 열렸다. 강좌 내용은 '화면 구도 작법'(정일성), '노출 이론'(유영길)이었다. 「문화행사」, 『동아일보』, 1970.09.23., 5면.; 「취미로서의 영화제작 내건 한국소형영화동호회 발족」, 『동아일보』 1970.07.25., 5면.



「〈문(門)〉 촬영 현장: 정일성 (아리플렉스 카메라)」 (스틸; 관리번호 DST7765268_03)

〈문〉(유현목, 1977)은 제주도 한라산 영실기암이 보이는 한라산 중턱에 오픈 세트를 짓고 겨울과 봄을 지내며 촬영했다. 사진은 오픈 세트 앞에 앉아서 바뀐 시나리오에 대한 촬영 계획을 재점검하는 정일성의 모습이다.



「〈문(門)〉 촬영 현장: 정일성, 민완기, 유현목 등 (아리플렉스 카메라)」 (스틸; 관리번호 DST7765267_03)

〈문〉(유현목, 1977)에서 강풍기를 사용한 촬영 현장.
준(이영하 분)이 굿을 경험하는 장면에서 깃발과 색종이가 날릴 때 강풍기가 사용되었다.





[위] 「제1회 소형영화촬영대회 회의: 변인식, 이상현, 정일성 등」(스틸; 관리번호 DST767067_03)
[아래] 「제1회 소형영화촬영대회 회의: 박상호, 정일성 등」(스틸; 관리번호 DST767068_03)
제1회 소형영화촬영대회(1970)를 준비 중인 회원들의 모습.
'제1회 8mm, 16mm 촬영대회'는 1970년 8월 23일 하루 동안 남이섬에서 열렸다.
'남이섬의 하루'와 '자유 주제'로 콘테스트를 열었고, 모델로 김진규, 문희, 윤정희 등이
참여했다(『동아일보』 1970.08.19., 7면). 1970년 10월 12일 신문회관 대강당에서는
소형영화촬영대회 수상작 시사회를 개최했다(『동아일보』 1970.10.12., 5면).

4. 1970년대 중반, 감독들의 성장을 견인하다

정일성은 1970년대 청년영화의 대표작인 〈바보들의 행진〉(하길종, 1975)을 촬영했다. 제작사들은 신예 감독과 중견 촬영감독의 안정적인 조합을 선호했는데, 연방영화사는 김호선의 데뷔작 〈환녀〉(1974)를, 화천공사는 하길종의 〈바보들의 행진〉(1975)을 정일성에게 의뢰하는 식이었다. 정일성은 순간순간 드러나는 하길종 감독의 즉흥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쇼트의 연결성을 부여해, 제작사가 노린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바보들의 행진〉에 대해 정일성은 직설적인 표현이 불가능한 시대를 낭만적이고 자조적인 코미디로 풀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참여했다고 말했다.[12] 그리고 경쾌하지만 암울한 1970년대 청년들의 정서와 문화를 감각적이고 불안한 카메라에 담아냈다. 그렇게 청년영화의 대표작이 등장했고, 하길종은 흥행감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길종과의 협업은 〈속 별들의 고향〉(1978)으로 이어졌다. 이 작품은 하길종 감독이 정일성에게 의뢰한 작품이었는데, 이를 위해 정일성은 이미 촬영 중이던 김기영 감독의 〈반금련〉(1981)과 스케줄을 나누며 촬영을 진행했다.

이 시기 웃지 못할 에피소드 중 하나는, 감독이 장발 단속에 걸려 촬영이 중단된 일이었다. 정일성은 하길종 감독을 구하기 위해 필동파출소로 쫓아가 파출소장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결국 1970년대 청년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길종 감독이 재치 있는 언변으로 경찰을 설득해서, 본인은 물론 단속된 청년들까지 모두 풀려

12) 이정아, 앞의 책, 172쪽.

날 수 있었다고 한다.[13] 엄혹한 시대를 반영한 영화와 현실이 연속되는 서글픈 일화이다. 〈속 별들의 고향〉은 세련된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로 완성되어 32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 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고교생의 학창 생활을 다룬 하이틴 영화도 인기를 끌었다. 대표적으로 석래명 감독의 〈고교얄개〉 시리즈를 들 수 있는데, 정일성은 1950년대 후반에 노필 감독의 연출부로 영화계에 입문한 석래명과 이미 오랜 인연이 있어 그와의 작업을 수락했고, 그의 얄개 시리즈 영화 4편을 연거푸 촬영하며 하이틴 영화의 붐을 견인했다.[14] 얄개 시리즈의 첫 작품인 〈고교얄개〉(석래명, 1976)는 2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석래명 감독의 재기를 이끌었다.

얄개 시리즈의 하이틴영화가 우수영화에서 대거 탈락하는 사태를 맞고 제작 유행이 한풀 꺾이자, 석래명 감독은 〈가을비 우산 속에〉(1979)를 연출하며 정통 멜로드라마 장르로 복귀했고 이때 역시 정일성이 촬영을 맡았다. 설악산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한 이 작품에서 정일성은 서정적인 풍광을 카메라로 잡아내어 그가 찍은 설악산 화면이 수채화처럼 아름답다는 평을 받았다.[15] 정일성은 장르를 넘나들며 하길종과 석래명 같은 동시대 감독들의 성장을 이끈 조력자였다.

13) 이정아, 앞의 책, 176~177쪽.
14) 정일성이 촬영한 석래명의 얄개 시리즈 영화는 〈고교얄개〉(석래명, 1976), 〈얄개행진곡〉(석래명, 1977), 〈고교 꺼꾸리군 장다리군〉(석래명, 1977), 〈여고얄개〉(석래명, 1977)이다. 첫 번째 영화인 〈고교얄개〉는 1977년 상반기 우수영화로도 선정되었다.
15) 「가을비 우산속에」, 『조선일보』 1979.08.26., 5면.



「〈속 별들의 고향〉 홍보 엽서」
(전단; 관리번호 DBKC001205_01)

홍보 엽서 앞면에 주연배우 장미희와 신성일, 주요 스태프 최인호(원작), 하길종(연출), 송창식(음악), 정일성(촬영)의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다.
우측 하단의 정일성 캐리커처에서 그의 장발 모습이 확인된다.
정일성은 장발 단속이야말로 유신체제의 불합리와 반이성의 상징이라 생각했고 저항의 의미로 머리를 길렀다.
하지만 그의 장발은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나의 젊음, 나의 사랑- 영화촬영 감독 정일성 (6)」, 『경향신문』 1996.04.17., 31면).



「대종상 수상자 포상 미국 여행 :
정일성 (페리 투어)」
(스틸; 관리번호 DST766689_03)

1979년, 제17회 대종상(1978) 촬영상 수상에 대한 포상으로 미국 전역과 하와이, 일본의 영화시설을 둘러볼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정일성은 1970년대 내내 장발을 고수했다.



「〈붉은 장미의 추억〉 스태프 단체사진: 허장강, 김지미, 신영균, 강대진, 노필, 고해진, 정일성, 석래명 등」(스틸; 관리번호 DST765034_03)

〈붉은 장미의 추억〉(노필, 1962) 촬영 현장에서 찍은 스태프 단체사진. 정일성(2열 우5)의 왼쪽 두 번째 모자와 안경을 쓴 이가 당시 조감독 석래명이다. 1열 제일 오른쪽에 노필 감독이 의자에 걸터앉아있다.



「〈가을비 우산속에〉 촬영 현장: 정일성, 석래명 등」(스틸; 관리번호 DST766581_03)

바닥에 누워 촬영 중인 정일성의 모습.

5. 1978년과 1980년, 생사의 기로에 서다

1978년 겨울,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던 정일성은 촬영 중 부상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을화〉(변장호, 1979) 도입부의 거친 파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강원도로 이동하던 중, 대관령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당시 겉으로 드러난 외상이 없던 정일성은 곧장 강원도 겨울 바다 속으로 들어가 촬영을 강행했고, 촬영을 마친 직후 장폐색으로 쓰러져 급히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퇴원하자마자 촬영을 재개해야 했다. 완성된 작품은 "느릿느릿 가지 않고 긴박감 있게 재빨리 사건들을 전개시키는데 촬영을 맡은 정일성의 노력이 크다"[16]는 평을 받았다. 영화 현장과 평단에서 그에게 "외눈박이 영상시인"[17]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진짜 위기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듬해인 1979년 상반기, 전년도 대종상(제17회) 수상자인 정일성[〈과부〉(조문진, 1978) 촬영]과 임권택[〈족보〉(1978) 연출], 조경환[〈세종대왕〉(최인현, 1978) 미술]에게 포상으로 해외여행 기회가 주어져, 미국 전역과 하와이, 일본의 영화 시설을 둘러보게 되었다.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에는 이 시기 세 사람의 여행을 기록한 사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일성은 이때부터 몸의 이상을 감지했지만 여러 일정에 밀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16) 「을화… 무속과 기독교의 갈등」, 『동아일보』 1979.09.29., 5면.
17) 「그늘 속에서도 긍지를 갖고...대중문화의 산파 2 일요연재」, 『조선일보』 1979.01.28.,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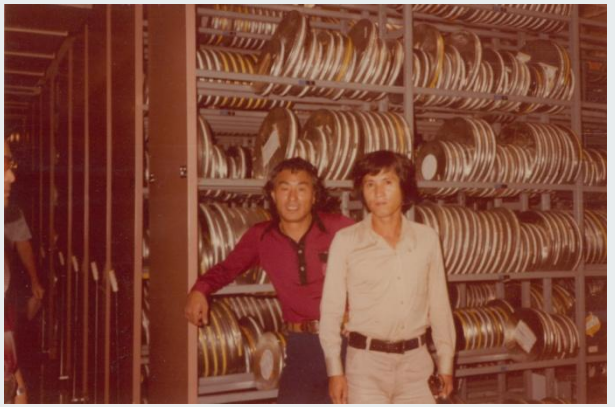
그리고 이 여행은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왔다. 여행 중 그는 임권택 감독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예술관을 확인한 후,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귀국 후인 1979년 6월, 정일성은 임권택의 〈신궁〉을 촬영했다. 원래 영화화 예정이었던 선우휘 원작의 「추적의 피날레」가 검열로 불가능해져, 대체된 작품이었다. 정일성은 구술에서 "그래 내가 앵글을 딱 잡으면 임 감독이 감동을 받드라고요"라며 〈신궁〉을 회고했다.[18] 결과적으로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 포커스가 나가고 흥행은 부진했지만, 임권택은 정일성의 아름다운 롱 쇼트와 적절한 걸고 찍기,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촬영 방식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다. 〈신궁〉은 이 둘의 오랜 협업의 출발점이 된 작품이다.

그러나 정일성은 〈최후의 증인〉(이두용, 1980)과 〈사람의 아들〉(유현목, 1980)을 연이어 촬영하며 서서히 신체적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최후의 증인〉은 사계절을 모두 담아야 하는 작품이라 전라도와 강원도를 오가는 무리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었고, 곧바로 〈사람의 아들〉의 촬영이 시작되어 또다시 전국을 돌며 촬영을 진행해야 했다. 정일성은 촬영이 끝난 1980년 가을, 결국 직장암 수술을 받았다.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라는 의사의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서 그가 한 생각은 '지금까지 병원 장면을 엉망으로 찍었구나. 만감이 교차하는 심리 상태를 잘 담아내지 못했구나'라는 후회와 반성이었다.[19]

18) 이정아, 앞의 책, 202~203쪽.
19) 「나의 젊음, 나의 사랑-영화촬영감독 정일성 (6) 수술 뒤 회복기의 고통 속에서」, 『경향신문』 1996.04.17., 31면.



「〈을화〉 촬영 현장: 변장호, 정일성, 이순재 등」(스틸; 관리번호 DST766215_03)
〈을화〉(변장호, 1979) 제주도 로케이션 촬영장에서 연출 중인 변장호와 정일성. 오른쪽 뒷모습의 남성은 배우 이순재이다. 〈을화〉 제주도 로케이션 촬영은 1978년 10월 중에 진행되었다(『동아일보』 1978.10.21., 5면).



「대종상 수상자 포상 미국 여행: 정일성, 임권택」(스틸; 관리번호 DST769478_03)
1979년 미국 여행 중 어느 필름 수장고를 방문한 정일성과 임권택.



「〈신궁〉 촬영 현장: 윤정희, 정일성, 정정원, 임권택, 곽지균, 손달호 등」 (스틸; 관리번호 DST769143_03)

정일성과 스태프들이 핸드헬드로 촬영 중인 모습.
그 왼쪽으로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임권택과 오른쪽에 서있는 배우 윤정희.



「〈사람의 아들〉 촬영 현장: 하명중, 유현목, 정일성」 (스틸; 관리번호 DST765036_03)

정일성의 건강이 악화되어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이다. 사진 뒷면에는 "가장 몸이 아프면서 촬영한 〈사람의 아들〉. 이 작품을 끝으로 두 번째 암 수술"이라고 적혀있다.

6. 1980년대 초반, 병마를 극복한 작품들

암 수술 후 정일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만다라〉(임권택, 1981)였다. 임권택 감독이 병상에 있는 그에게 김성동의 원작 소설을 건네주며 제안한 작품이었다. 1981년 봄부터 촬영에 들어가 사계절을 모두 담은 작품이니, 수술 후 1년도 안 되어 현장에 나간 것이었다. 병상에서 일어난 그는 임권택 감독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만다라〉는 '로우키의 흑백톤'으로 시대의 음울함을 표현할 것, 그리고 '인물을 주변에 두고 빈 공간을 촬영할 것'이었다. 정일성은 이 빈 공간을 관객이 사유하고 채워야 할 여백으로 제안했다. 빈 공간을 화면에서 살리는 것도, 또 컷의 연결도 어렵지만 이런 모험에 임권택 감독은 기꺼이 동참했다.[20] 정일성은 〈만다라〉로 제2회 영평상에서 촬영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사람의 아들〉(유현목, 1980)로 수상한 데 이은 연속 수상이었다.

〈만다라〉 이후 정일성에게 작품이 몰려들었다. 심지어 1982년 대종상 극영화 부문 후보작에 오른 14편 중 무려 5편이 그가 촬영한 작품이었다. 김수용 감독의 〈만추〉(동아수출공사, 1981), 김기영 감독의 〈화녀 82〉(신한, 1982), 임권택 감독의 〈오염된 자식들〉(화천공사, 1982) 그리고 또다시 김수용 감독의 〈저녁에 우는 새〉(태창, 1982)와 〈삐에로와 국화〉(태창, 1982)였다. 이 중 〈저녁에 우는 새〉와 〈삐에로와 국화〉는 태창영화사가 각각 대종상 문예 부문과 안보 부문에 출품하고자, 파리에서 귀국한 배우

20) 이정아, 앞의 책, 201쪽.

윤정희를 출연시켜 거의 같은 시기에 촬영한 작품이었다.[21] 이 외에도 정일성은 〈우상의 눈물〉(임권택, 1981)과 〈여자의 함정〉(이경태, 1982)도 촬영했으니, 이 시기에 총 8편의 작품을 촬영해 완성시켰다. 의사마저 죽음을 예상했던 수술 후 2년이 안 되어 이룬 결과였다. 그는 당시 완성 날짜가 촉박하게 정해져 있어 촬영을 서둘러야 하는 영화를 '시한부 영화'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기 정일성은 죽음에서 돌아와 부족한 여건에서 시한부 영화를 탁월하게 완성시킨 초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는 〈만추〉(김수용, 1981)로 1982년 제21회 대종상 촬영상을 수상했다.

한편 밀려드는 작품 때문에 여유가 없는 그를 배려해, 〈안개마을〉(1982)은 임권택 감독 혼자 헌팅을 마친 후 정일성이 합류해 18일 만에 촬영을 끝냈다. 이 작품으로 그는 1983년 제22회 대종상 촬영상을 수상했다.

21) 「올해 대종상 향방은」, 『경향신문』 1982.12.02., 12면; 「대종상 극영화 14편 등 20편 경쟁」, 『경향신문』 1982.12.07., 7면.



「〈만다라〉 촬영 현장: 전무송, 정일성, 임권택 등」
(스틸; 관리번호 DST770494_03)



「제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 정일성, 김종원」
(스틸; 관리번호 DST767028_03)



「〈만추〉 촬영 현장: 김수용, 정동환, 정정원, 정일성 등」
(스틸; 관리번호 DST769084_03)



「〈안개마을〉 촬영 현장: 정윤희, 정일성, 임권택 등」
(스틸; 관리번호 DST770463_03)

7. 1980년대, 다양한 작품에 도전하고 실험하다

정일성은 수술 후 약 2년간 몰아치듯 9편[22]의 작품을 촬영했다. 일에 몰두하면 긴장감 때문에 몸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밀려드는 좋은 작품은 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방이었던 것 같다. 1983년부터는 템포를 늦춰 매년 적게는 한 편 많게는 4편 정도의 작품을 2000년까지 꾸준히 촬영했다.

1983년에는 4월에 크랭크인한 〈불의 딸〉(임권택) 촬영을 마치고, 7월에 유현목 감독의 〈상한 갈대〉 촬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상한 갈대〉는 미국에서 거주 중인 배우 최정민과 가수 박일준이 출연한 기독교 영화로, 하와이와 뉴욕 등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에는 이때 그가 뉴욕과 하와이 등지에서 찍은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로케이션 현장에서 영화 촬영에 집중하는 촬영감독의 모습부터 잠깐의 짬에 뉴욕 시내를 둘러보는 관광객의 모습까지, 다양한 순간들이 기록돼 있다.

1984년에는 태흥영화사의 창립 작품으로 기획된 〈비구니〉(임권택) 촬영을 시작했다. 이 작품은 향후 태흥영화사의 중흥기를 함께할 정일성, 임권택, 이태원의 첫 협업이었다. 그해 4월 초에 김지미를 비롯한 배우들이 삭발을 감행하고 〈비구니〉 촬영에

22) KMDb에서 정일성의 1981~82년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그는 총 10편의 작품에 참여했으며 그중 〈반금련〉(김기영, 1981)이 포함되어 있다. 동아수출공사에서 제작한 〈반금련〉은 1981년 3월에 개봉되어 1981년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촬영은 〈금병매〉라는 제명으로 1974~75년에 진행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당시 검열에서 문제가 되어 상영이 보류되었다가 1981년 〈반금련〉으로 제명을 바꾸고 대폭 삭제, 재편집해 검열을 통과, 상영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정일성은 1981~82년 사이에 〈반금련〉을 제외한 총 9편의 작품을 촬영했다.

들어갔다. 그러나 주인공 비구니가 구도 과정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뇌가 외설로 비춰지는 등 종교를 세속화했다는 불교계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된다. 불교계의 〈비구니〉 제작 반대 시위와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고, 영화계는 창작 자유 수호 결의 대회를 여는 등, 불교계와 영화계의 갈등 양상이 심각해졌다. 결국 사회적 물의를 우려한 태흥영화사는 그해 6월, 제작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촬영이 약 20%가량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에는 〈비구니〉와 관련된 사진이 일부 남아있는데, 태흥영화사 로고가 박힌 커다란 동시녹음용 미첼 카메라와 로케이션 촬영 현장의 분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인상적이다. 〈비구니〉 제작이 중단되자 정일성은 태흥영화사의 후속작 중 하나인 이두용 감독의 〈장남〉(1984)을 촬영하게 되었다. 미리 말하자면 정일성, 임권택, 이태원 트리오는 태흥영화사가 문을 닫는 2004년까지 총 8편의 작품을 함께 하는데, 그중 몇 편은 당대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신드롬'으로 일컫어졌고 또 몇 편은 국제영화제 수상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도 이루어냈다. 이 기록들 모두 컬렉션에 생생한 사진으로 남겨져 있다.

다음 해인 1985년, 그는 화천공사에서 제작한 〈길소뜸〉(임권택)을 촬영했다. 〈길소뜸〉은 1983년 KBS가 진행한 이산가족 찾기 TV 생방송이 한창일 때 임권택 감독이 구상한 작품이다. 정일성과 임권택은 화천공사에 얘기해 1983년 여의도 KBS 방송국 본관 주변, 사람들로 가득 찬 이산가족 찾기 현장을 미리 촬영해 두었다. 이 푸티지는 영화에서 화영 역의 김지미가 여의도 이산가족 찾기 현장을 둘러볼 때 화영의 시점쇼트 장면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위해 푸티지는 여의도 오픈 세트 촬영분과 교차해서 사용되었고 스크린프로세스의 배경으로도 이용되어 영화에 사실감을 더해주었다.

1986년의 첫 작품은 배창호 감독의 제안으로 촬영한 〈황진이〉였다. 정일성은 작품을 선택할 때 감독과의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함께 작업한 경험이 있거나 이미 관계가 있는 감독들의 작품을 주로 맡았다. 당시 흥행의 귀재로 불리던 배창호 감독과는 그동안 인연이 없었으나 〈황진이〉를 통해 예술적 도전을 시도하고자 한다는 감독의 설득에 정일성은 동참을 결정했다. 단, 파나비전 카메라를 사용하는 조건을 걸고서 말이다.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에는 당시 렌탈비가 10배나 더 드는 파나비전 카메라를 대여하기 위해 제작자 이우석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사진, 촬영 현장에서 부감 쇼트를 촬영하기 위해 중장비를 사용한 사진 등, 〈황진이〉 제작 당시의 다양한 풍경들이 담겨있다. 에로티시즘 사극이 한창 유행하던 때에 〈황진이〉는 '한국오락영화에 대한 쿠데타'[23]라는 평을 들을 만큼 절제된 대사와 롱 테이크로 남다른 예술적 스타일을 시도했다. 그러나 관객들은 황진이에게 구도적 헌신을 기대하지 않았던 듯 흥행에는 참패했다. 다행히 〈황진이〉는 파나비전 카메라로 정일성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롱 쇼트와 형식미 돋보이는 장면들로 배창호 감독이 시도한 예술적 도전에 대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23) 「영화계 〈황진이〉 파문」, 『조선일보』, 1986.09.28., 7면.



「〈상한 갈대〉 촬영 현장(뉴욕): 구교환, 유현목, 정일성 등」
(스틸; 관리번호 DST765215_03)



「〈비구니〉 기념사진: 차정남, 임권택, 김지미, 정일성 등 (미첼 카메라)」
(스틸; 관리번호 DST766499_03)

영화 〈비구니〉 제작 당시 태흥영화사가 보유한 미첼 카메라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길소뜸〉 장면 사진: 신성일, 김지미」 (스틸; 관리번호 DST770437_03)

이산가족을 찾는 대자보가 붙어 있는 여의도 KBS 방송국 본관 앞에서 재회한 화영(김지미 분)과 동진(신성일 분)의 모습이다. 이 장면의 앞부분에는 방송국 주변을 둘러보는 화영의 시선을 따라 정일성과 임권택이 미리 촬영한 1983년 여의도 현장의 푸티지들이 등장한다.



「〈황진이〉 촬영 현장: 배창호, 정일성, 구교환, 송일근 등 (파나비전 동시녹음 카메라)」
(스틸; 관리번호 DST765817_03)

1987년 상반기에는 극단 자유극장의 집단연극 〈바람부는 날에도 꽃은 피고〉(김정옥)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를 촬영했다. 연극 연출가 김정옥의 첫 영화 연출작인데, 연극인들의 일상과 극단 내부의 긴장을 담은 실험적인 작품으로, 특정 주인공 없이 다수의 배우들이 본명으로 등장하는 속에 연극과 영화, 실제와 허구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야 했다. 다시 말해 영화 문법을 잘 아는 노련한 촬영감독이 꼭 필요한 작품이었다.

이어서 정일성은 〈바람부는 날에도 꽃은 피고〉를 제작한 강대선 감독의 연출작 〈동녀〉(1987) 또한 촬영했다. 〈동녀〉는 프랑스 여성과 휴가 중인 모범수 남성이 기차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으로, 프랑스 여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 강대선과 정일성이 파리로 건너간 기록이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에 사진으로 남아있다.[24] 〈만추〉의 설정과 유사한 점에서 김수용의 〈만추〉(1981)를 촬영했던 정일성의 경험이 〈동녀〉에서도 발휘되었을 것이다. 〈바람부는 날에도 꽃은 피고〉와 〈동녀〉 모두 그해 이색적인 작품으로 주목 받았다.

1987년 5월 11일, 정일성을 포함한 영화인 97명은 4.13호헌 조치 철회와 개헌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25] 이로 인해 일부 제작사와의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는 영화계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예상해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 6.29 선언이 발표되어 1987년 하반기부터 다시 그에게 제작사의 작품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해 하반기에 정일성은 변장호 감독이 제작한 〈감자〉(변장호, 1987)를 경상도에서, 화천공사가 제작한 〈아다다〉(임권택, 1987)를 전라도에서 동시에 촬영하게 되었다.

한편 1988년에는 올림픽 공식 기록영화 촬영의 총책임을 맡았다. 국립영화제작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출용 기록영화를, 임권택을 위시한 충무로 영화계는 극장 흥행용 기록영화를 각각 제작했다. 모두 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주요 경기에는 카메라 수십 대가 동시에 사용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올림픽 기간 중 쓸 만한 카메라와 인력들이 모두 동원되어 극영화 현장은 잠시 멈출 수 밖에 없었다. 1988년 정일성의 필모그래피가 비어있는 이유이다. 충무로 영화계가 만든 작품은 다음 해 가을 〈손에 손잡고〉라는 제목으로 완성되었다.[26]

24) 당시 기사에는 〈동녀〉가 한국영화의 유럽 수출을 위해 기획된 작품이며 고몽영화사 동남아담당 부장 필립 드르봉의 주선으로 여배우 파비안 베르토를 초청했다고 전하고 있다(『매일경제』, 1987.04.08., 9면). 또한 프랑스 고몽과 오므니 필름, 영국의 AAA, 미국의 캐넌그룹 등과 프랑스와 유럽, 세계 판권을 놓고 상담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경향신문』, 1987.08. 25., 11면) 현실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5) 「영화인 97명 시국 성명」, 『동아일보』 1987.05.12., 7면.

26) 「올림픽 기록영화 두 편 선뵈」, 『한겨레신문』 1989.10.29., 7면.



「〈바람부는 날에도 꽃은 피고〉 촬영 현장: 김정옥, 정일성」
(스틸; 관리번호 DST765029_03)



「〈동녀〉 촬영 현장: 파비엔느 베르도, 정일성 등」
(스틸; 관리번호 DST766694_03)



「〈감자〉 촬영 현장: 정일성, 강수연 등」
(스틸; 관리번호 DST766348_03)



「〈아다다〉 촬영 현장: 정일성, 임권택 등 (달리 쇼트)」
(스틸; 관리번호 DST770296_03)



「〈손에 손잡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록영화) 기념사진: 정일성, 김용옥, 임권택 (한강변)」
(스틸; 관리번호 DST766055_03)
'88 서울올림픽 공식 기록영화 〈손에 손잡고〉의 대본은 김용옥이 맡았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SC지원 카드: 정일성」
(박물류; 관리번호 EQ001848_01)
극장 흥행용 올림픽 기록영화 연출과 촬영 총책임을 맡은 임권택(연출)과 정일성(촬영)은 선수촌 숙소부터 경기장까지 모든 공간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아 움직였다.

8. 1990년대, 정일성-임권택-이태원이 함께한 작품들

1990년대 정일성은 임권택, 이태원과 함께 흥행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두루 갖춘 작품들을 잇따라 선보였다. 그 시작은 〈장군의 아들〉(1990)이었다. 서울 관객 67만 명을 동원하며 당시 역대 흥행 1위에 오른 이 작품은 액션영화를 찍고 싶지 않았던 임권택과 액션을 촬영해본 적 없는 정일성이 태흥영화사 사장 이태원의 제안으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어메리카 *Once Upon A Time In America*〉(세르지오 레오네, 1984)를 떠올리며 의기투합한 결과였다.[27] 공간을 중요시하는 정일성과 임권택답게 〈장군의 아들〉 역시 액션과 동선이 배경과 조화를 이루었다. 수원 KBS 세트장에서 촬영된 〈장군의 아들〉의 큰 성공에 힘입어, 태흥영화사는 경기도 벽제에 대규모 세트장을 만들었고, 〈장군의 아들〉 후속편을 포함한 태흥의 여러 작품들을 이곳에서 촬영하였다.[28]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에는 당시 벽제 세트장에서 찍은 현장 사진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장군의 아들〉의 성공 이후, 정일성과 임권택은 춘우영화에서 제작한 〈개벽〉(1991)을 촬영했다.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의 생애를 다룬 영화로, 정일성은 인본주의자 최시형이 척박한 시기에 겪은 아픔과 고통을 아름다운 화면 속에 구현해냈다. 끊임없이 방랑하고 도주하는 인물의 움직임, 대규모 군중과 횃불이 어우러진 장면들로, 인물의 사상과 고난을 시각적으로 묵직하게 표현해냈다.

27) 이정아, 앞의 책, 222쪽.
28) 「세트제작비 4억 장군의 아들2 30년대 종로 재현」, 『조선일보』 1991.04.12., 11면.

1993년에는 정일성과 임권택, 이태원이 다시 모여 〈서편제〉를 제작했다. 한국영화사에서 회자되는 명장면 중 하나인 청산도의 굽이진 길을 세 명의 등장인물이 신명나게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걸어오는 5분 가량의 롱 테이크 장면이 드디어 탄생했다. 정일성은 이 장면에서 척박한 땅을 옥토로 개간한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를 바랐다. 손으로 일구어 밭으로 개간한 땅과 그 땅에서 나온 돌로 켜켜이 쌓은 굽이진 돌담길은 우리의 역사였고, 흥을 실어 소리하는 각기 다른 처지의 인물들은 역사를 관통해온 사람들이었다. 고단한 역사와 그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한과 신명이 한 장면에 담겨야 했다. 그래서 정일성은 적절한 시간대에 나부끼는 초록빛 물결을 역광으로 촬영해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후, 밭과 길 그리고 인물들의 동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앵글이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되는, 아이 앵글보다 조금 높은 시야로 촬영했다.[29] 공간과 빛을 보는 안목과 영화에 대한 철학이 더해져 나온 명장면이다. 〈서편제〉는 서울에서 10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흥행 1위작이 되었고, 정일성은 1993년 대종상과 영평상, 청룡영화상 촬영상을 석권했다.

1994년, 드디어 정일성, 임권택, 이태원은 〈태백산맥〉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서편제〉 이전에 이미 헌팅을 끝냈지만 이념 논쟁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던 작품이었다. 〈서편제〉의 확실한 성공이 〈태백산맥〉을 제작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태백산맥〉은 2부작으로 나눠 2년간 찍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2편은 결국 또다시 반대에 부딪혀 제작되지 못했다.

29) 이정아, 앞의 책, 229~230쪽.



「〈장군의 아들〉 촬영 현장 (크레인)」 (스틸; 관리번호 DST766579_03)



「〈장군의 아들 2〉 촬영 현장: 임권택, 차정남, 이명수, 이태원, 정일성 등 (벽제 오픈 세트장)」
(스틸; 관리번호 DST766369_03)



「〈개벽〉 촬영 현장: 임권택, 정일성 등」
(스틸; 관리번호 DST766599_03)



「〈서편제〉 장면 사진: 김규철, 오정해, 김명곤」
(스틸; 관리번호 DST766937_03)



「〈서편제〉 촬영 현장: 임권택, 정일성 등」(스틸; 관리번호 DST769835_03)



「제1회 상하이국제영화제 폐막식: 정일성, 이태원, 오정해, 임권택, 김명곤 등」
(스틸; 관리번호 DST767021_03)

1993년 10월에 열린 제1회 상하이국제영화제에서 임권택은 〈서편제〉로
최우수 감독상을, 오정해는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9. 국내 최초로 수입허가를 받은 일본영화를 촬영하다

정일성은 〈태백산맥〉(임권택, 1994)을 끝내고 임권택 감독과의 작업에 잠시 쉼표를 찍었다. 그런 중에 선택한 작품은 김수용 감독이 연출하고 일본에서 제작한 〈사랑의 묵시록〉(김수용, 1995)이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부터 목포에서 공생원을 운영한 일본인 여성 윤학자(田内千鶴子, 다우치 치즈코) 여사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1994년 8월에 도쿄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진 후 목포와 일본 고치현에서 로케이션 촬영이 진행되었고, 파나비전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되었다.[30]

이 영화는 1995년에 완성되어 1997년 9월, 도쿄에서 정식 상영되었고[31] 국내에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발표 후인 1998년 10월에 최초로 수입허가를 받아, 일본문화 개방의 마중물 역할을 한 작품이 되었다.[32]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에는 이 작품의 촬영 현장 뿐 아니라 일본 고치현 주민들과의 교류가 담긴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성장기를 일본에서 보낸 정일성에게 이 작품은 한일 양국의 갈등을 넘은 헌신적인 삶이라는 주제와 일본 현지에서 받은 환대 때문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듯하다.

이후 정일성은 장현수 감독과 〈본투킬〉(1996)을, 장길수 감독과는 〈아버지〉(1997)와 〈실락원〉(1998)을, 김수용 감독과 〈침향〉(1999)을 촬영하며 꾸준히 작품을 이어갔다.

30) 「한국 남자와 결혼 고아 3000명에 사랑의 손길 일 여인 '윤학자 여사 일대기' 영화화」, 『동아일보』 1994.08.05., 19면.
31) 「한일합작 휴먼 드라마 사랑의 묵시록 일서 상영」, 『동아일보』 1997.09.19., 19면.
32) 「한일공동제작영화 '사랑의 묵시록' 국내 수입 허가」, 『동아일보』 1998.10.28., 17면.



「〈사랑의 묵시록〉 촬영 현장: 정일성 등 (크레인)」
(스틸; 관리번호 DST766095_03)



「〈사랑의 묵시록〉 일본 고치현 로케이션 촬영 종료 기념 행사: 정일성」
(스틸; 관리번호 DST766131_01)

10. 2000년대, 아날로그적 격조로 구현한 한국적 영상미

정일성의 2000년은 임권택, 이태원과 다시 모여 만든 〈춘향뎐〉(임권택, 2000)으로 시작했다. 이 작품은 판소리 공연과 '춘향전'의 영상을 병치한 액자식 구성을 통해, 한국 전통 예술과 영화의 결합을 실험적 형식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정일성이 선택한 첫 번째 형식은 조상현 명창의 소리와 리듬에 맞춰 카메라가 시종 종횡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픽스의 유혹'을 물리치며 카메라는 흘러가는 소리에 맞춰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박력 있는 핸드헬드로 움직인다. 흐르는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카메라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이중의 경계는 느슨해진다.

두 번째 형식은 필름의 색감 실험으로 한국적인 천연색을 구현한 것이었다. 그는 코닥 필름의 장점인 붉은색에 코랄 필터를 사용해, 토속적인 황토색에 가까운 컬러를 만들어냈다.[33] 이는 시청각적 감흥을 증폭시켜 곱고 화려한 색의 향연이 소리에 실려 마음까지 울렁이게 만들었다.

이후 정일성, 임권택, 이태원 세 사람은 조선 후기 천재 화가 장승업의 삶을 그린 〈취화선〉(2002)으로 협업을 이어갔다. 장승업의 그림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보니, 정일성에게는 한국의 전통 회화를 비스타비전 프레임에 담아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다. 그는 이 문제를 그림과 여백이 어울리는 앵글로 혹은 패닝 같은 카메라 워크로, 또는 부분적인 촬영으로 장승업의 호방하면서도 정교한 작품들을 담아내며 해결했다. 무엇보다 그가 촬영한 한국의 정취가 풍기는 길과 산과 강, 마을의 풍경이 장승업을 따라가며 마치 한 폭의 산수화나 수묵화 같은 화면으로 펼쳐져, 영상과 그림의 경계가 사라지게 만들었다. 〈취화선〉은 2002년 제5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임권택에게 감독상을 안겨주었다.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에는 한국영화 최초로 칸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임권택과 정일성, 이태원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

정일성과 임권택, 이태원 세 사람이 함께 한 영화 여정은 〈하류인생〉(임권택, 2004)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2006년에는 그가 국내에서 촬영한 마지막 작품인 〈천년학〉(KINO2, 임권택)이 완성되었다. 〈천년학〉은 1993년에 개봉한 〈서편제〉(태흥영화, 임권택, 1993)의 후속편으로, 〈서편제〉 이후 13년 만에 완성된 작품이었다. 이루지 못하는 사랑이 소리로 승화된다는 주제를 따라, 처연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영상이 전편에 흐른다. 1980년대부터 임권택의 인본주의와 예술적 승화라는 주제에 아픔의 아름다움을 미학적으로 추구해 온 정일성의 촬영이 만나 흘러온 여정이 이 작품으로 끝을 맺었다.

정일성은 〈천년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가, 잠시 활동한 뒤 촬영인생을 마무리했다.

> "내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고통을 아는 사람을 찍고 싶은 거예요. (…) 나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각을 통해서 어떻게 찍어서 아픔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자신 있는데

33) 이정아, 앞의 책, 240쪽.

(…) 그래서 나는 아픔의 드라마를 찍고 싶어요. 이야기 구조의 드라마를 찍고 싶은 게 아니고. 나라는 마음이, 대상이란 마음을 찍고 싶은 거예요."[34]

그는 시대마다 한국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에 인장을 찍듯 아름다운 마스터 쇼트와 풀 쇼트 그리고 신을 남겼다. 그 인장들은 쇄신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무엇보다 아픔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 땅의 공간과 시간을 오롯하게 보아온 그의 구도자 같은 태도에서 비롯된 듯하다. 앞선 사람들이 척박한 땅을 닦아 길을 만들듯, 그는 1950년대부터 모아온 자료들을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하며 "촬영감독 정일성 컬렉션"을 만들었다. 이 컬렉션은 정일성 촬영감독이 영상으로 남긴 많은 길과 함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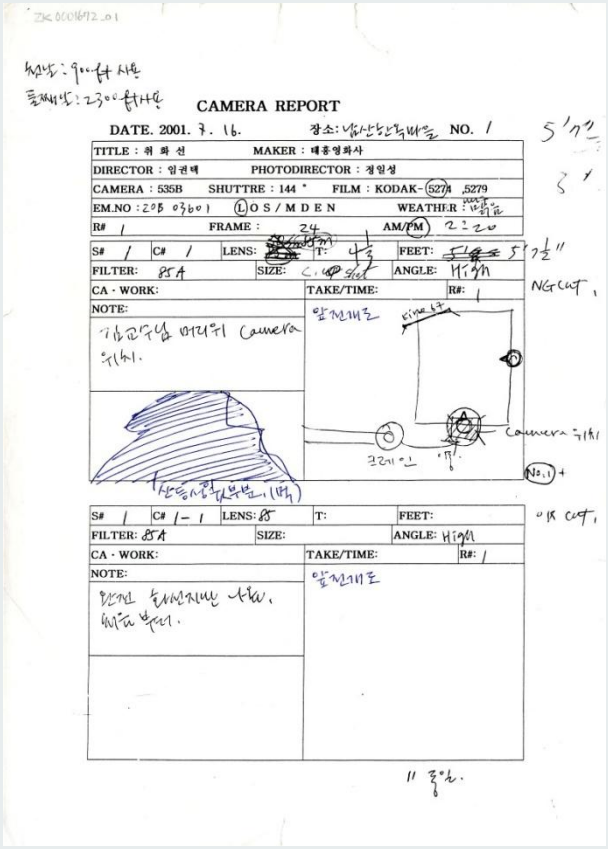
34) 이정아, 앞의 책, 106~107쪽.



「제53회 칸국제영화제 〈춘향뎐〉 팀 레드 카펫 현장: 이태원, 이효정, 임권택, 조승우, 정일성」
(스틸; 관리번호 DST766489_03)



「제55회 칸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기념: 최민식, 정일성, 임권택, 이태원, 안성기」
(스틸; 관리번호 DST765292_03)



CAMERA REPORT

DATE. 2001. 7. 16. 장소: 남산산동네들 NO. 1

TITLE : 취 화 선 MAKER : 태흥영화사

DIRECTOR : 임권택 PHOTODIRECTOR : 정일성

CAMERA : 535B SHUTTRE : 144 ° FILM : KODAK-(5274) 5279

EM.NO : 2085 양80이 LOS/MDEN WEATHER : 맑음

R# 1 FRAME : 24 AM/PM 22:20

S# 1 C# 1 LENS: T: FEET:

FILTER: 85A SIZE: ANGLE:

CA · WORK: TAKE/TIME: R#: 1

NOTE:

「〈취화선〉 카메라 리포트」(기타자료; 관리번호 DZK0001672_01)

〈취화선〉(임권택, 2002) 촬영 중에 작성한 카메라 리포트(2001.07.16.~12.16.).
날짜별 촬영 장면, 장소, 카메라 기종과 렌즈, 셔터 스피드 및 필름, 필터와 카메라워크, 사이즈 및 앵글 등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위] 「〈천년학〉 공식 보도사진: 정일성」(스틸; 관리번호 DST765760_03)
[아래] 「〈천년학〉 공식 보도사진: 정일성」(스틸; 관리번호 DST765768_03)

〈천년학〉(임권택, 2006)의 매화밭 장면으로, 정일성이 영화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을 준비하는 중이다. 당시 조수였던 촬영감독 박정훈은 매화꽃잎이 날리는 매화밭에서 송화가 소리를 하는 이 장면이 해의 움직임, 풍경, 인물, 카메라 동선 등 모든 미장센 요소를 한 데 담은 마스터 쇼트의 교과서라고 평했다(김경욱 외, 『격조의 예술가 파격의 모험가 정일성』, 부산국제영화제, 2019, 155쪽).

부록 1 컬렉션 구성과 규모

① 시기/내용별

시기 \ 내용	작품 (참여작)	작품 (참여 외)	영화제 /행사	기타 활동	개인 및 생애	기타	<계>
1930년대						4	4
1940년대					6	1	7
1950년대	47	5				123	175
1960년대	79	11			3	141	234
1970년대	155	17	15		159	341	687
1980년대	462	11	57	5	122	215	872
1990년대	357	2	102	17	22	36	536
2000년대	63	7	84	8	21	19	202
2010년대			11	2	2	4	19
2020년대					1		1
시기 혼합					6		6
미상	56	13	11	2	178	4	264
<계>	1,219	66	280	34	520	888	3,007

부록 1 컬렉션 구성과 규모

② 형식/내용별

형식 \ 내용	작품 (참여작)	작품 (참여 외)	영화제 /행사	기타 활동	개인 및 생애	기타	<계>
사진	1,115	16	213	10	457	11	1,822
간행물						875	875
시나리오	77	43					120
상패/트로피			49	7			56
기념/소장품	7		12	1	29		49
서신/전보	3	4	1		14		22
기사/스크랩	1	1			13		15
위촉장/증서	3			12			15
제작실무자료	7	1					8
홍보물/티켓	6	1	1				8
자료집/팸플릿			3	1	3		7
기타문서			1	3			4
메모/드로잉					4		4
촬영 장비						2	2
<계>	1,219	66	280	34	520	888	3,007

부록 2 바이오그래피*

1929년	일본 도쿄 출생
1943년	일본 도쿄 시나가와 소학교 졸업
1945년	일본 도쿄 제2공업중학교 중퇴
1947년	서울중학교(6년제) 졸업
1951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학사 졸업
	미공보원(USIS) 정훈장교 복무
1952년	대한민국 육군보병학교 졸업
1953년	대한민국 육군공병학교 졸업
	육군 중위 진급
1954년	육군 중위 예편
1961년	아시아영화재단 주선 일본 유학 (구로사와 아키라 연출팀과 작업)
1964년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행정학사 졸업
1981~82년	한국영화인협회 부이사장 역임
1983~84년	서울예술전문대학 강사 역임
1985~88년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강사 역임
1988년	서울올림픽 기록영화 촬영감독
1994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1994~95년	한국영화인협회 부이사장 역임
1997년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회원
2007년	제2회 SAC 청소년 모바일 영화제 심사위원장

* [부록 2]의 바이오그래피와 [부록 4]의 수상 내역은 『2017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생 17-4 〈생애사〉 정일성』(이정아, 한국영상자료원, 2017)에서 발췌

부록 3 필모그래피**

1954년	국방부 공군 홍보 영화 〈출격명령(돌격명령)〉(홍성기) 촬영부	
1955년	〈막난이비사(망나니비사)〉(김성민) *uncredited	(1점)
1956년	〈천추의 한〉(안종화) *uncredited	(4점)
	〈인생역마차〉(김성민) *uncredited	(2점)
1957년	〈가거라 슬픔이여〉(조긍하) * (공식 크레디트) 촬영보	(25점)
1958년	〈형제〉(김성민) *uncredited	(1점)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신현호, 권호) *uncredited	(2점)
1959년	〈꿈은 사라지고〉(노필) *uncredited	(3점)
	〈꿈이여 다시한번〉(백호빈) *uncredited	(4점)
	〈실례했습니다〉(박성호) *uncredited	(1점)
	〈Korea, Battleground for Liberty〉(존 포드) *uncredited	(1점)
1960년	〈흙〉(권영순) *uncredited	(7점)
	〈그리운 그 얼굴〉(권영순) *uncredited	(4점)
	〈표류도〉(권영순) *uncredited	(11점)
1961년	〈군도〉(유심평) *uncredited	(23점)
1962년	〈구름이 흩어질 때〉(이봉래)	(3점)
	〈붉은 장미의 추억〉(노필)	(6점)
	〈동경서 온 사나이〉(박성복)	(6점)

** • 미완성/미제작 영화는 제외했으며, 제목 옆의 uncredited 표기는 공식 크레디트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본 컬렉션 자료를 통해 참여 여부가 확인된 작품을 의미함.
• 컬렉션에 해당 작품 관련 자료를 소장한 경우, 자료 형식별 보유 수량을 함께 기입하였음.
[범례] 사진 시나리오 상패/트로피 기념/소장품 서신/전보
기사/스크랩 위촉장/증서 제작실무자료 홍보물/티켓

부록 3 필모그래피

1963년	〈율곡과 그 어머니〉(이종기)	(9점)
	〈거지왕자〉(안현철)	(1점)
	〈조강지처〉(박구)	
1966년	〈순애〉(박종호)	(8점)
1969년	〈지하실의 7인〉(이성구)	(1점)
	〈아파트의 여인〉(이성구)	
1970년	〈홍콩의 단장잡이〉(최영철)	
	〈홍콩의 마도로스〉(최영철)	
1971년	〈화녀〉(김기영)	(3점) (3점)
	〈과객〉(권철)	
	〈쌍벌한〉(임충희)	(1점)
1972년	〈충녀〉(김기영)	(1점)
1973년	〈엄마결혼식〉(조문진)	(1점)
	〈난파선〉(강혁)	(1점)
	〈광복 20년과 백범 김구〉(조긍하)	

부록 3 필모그래피

1974년	〈이중섭〉(곽정환)	(1점)
	〈국회푸락치〉(권영순)	(2점) (1점) (1점)
	〈환녀〉(김호선)	(1점)
	〈호기심〉(조문진)	(2점) (1점)
	〈파계〉(김기영)	(2점) (1점)
	〈대형〉(정인엽)	(1점)
1975년	〈불꽃〉(유현목)	(1점)
	〈육체의 약속〉(김기영)	
	〈바보들의 행진〉(하길종)	(2점)
1976년	〈고교얄개〉(석래명)	(1점)
	〈가위 바위 보〉(김수용)	(1점) (2점)
	〈유정〉(강대진)	(1점)
	〈광화문통 아이〉(이원세)	(2점)

부록 3 필모그래피

1977년	〈화려한 외출〉(김수용)	(1점) (1점)
	〈악어의 공포〉(이원세)	(2점) (1점)
	〈여고알개〉(석래명)	(2점)
	〈이어도〉(김기영)	(1점)
	〈사생문〉(남기남)	
	〈알개행진곡〉(석래명)	(1점)
	〈문〉(유현목)	(10점) (1점) (1점)
	〈고교 꺼꾸리군 장다리군〉(석래명)	(1점)
1978년	〈속 별들의 고향〉(하길종)	(4점)
	〈망명의 늪〉(김수용)	(2점) (2점)
	〈과부〉(조문진)	(1점) (1점)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유현목)	(6점) (1점)

부록 3 필모그래피

1979년	〈신궁〉(임권택)	(9점) (1점)
	〈가을비 우산속에〉(석래명)	(21점)
	〈을화〉(변장호)	(27점) (1점)
	〈사랑의 조건〉(김수용)	(30점) (1점)
1980년	〈사람의 아들〉(유현목)	(2점) (1점)
	〈최후의 증인〉(이두용)	(6점) (1점)
	〈그 여자 사람잡네〉(이형표)	(7점)
	〈우산속의 세 여자〉(이두용)	(4점) (1점)
1981년	〈만추〉(김수용)	(40점) (1점)
	〈만다라〉(임권택)	(51점) (1점) (3점)
	〈우상의 눈물〉(임권택)	(1점)
	〈반금련〉(김기영)	(2점)

부록 3 필모그래피

1982년	〈안개마을〉(임권택)	(25점) (1점) (1점)
	〈삐에로와 국화〉(김수용)	(3점) (1점)
	〈여자의 함정〉(이경태)	(9점) (1점)
	〈저녁에 우는 새〉(김수용)	(13점) (1점)
	〈오염된 자식들〉(임권택)	(2점)
	〈화녀 82〉(김기영)	(8점) (2점)
1983년	〈불의 딸〉(임권택)	(12점) (2점)
1984년	〈장남〉(이두용)	(5점) (1점)
	〈상한 갈대〉(유현목)	(29점) (1점)
1985년	〈어미〉(박철수)	(5점) (1점)
	〈길소뜸〉(임권택)	(29점)

부록 3 필모그래피

1986년	〈황진이〉(배창호)	(86점) (1점) (1점) (1점)
	〈'86 아시아드〉(이영호(국립영화제작소), 임권택 등) *uncredited	(16점) (1점) (2점)
	〈태〉(하명중)	(1점)
	〈안개기둥〉(박철수)	(3점) (1점)
1987년	〈아다다〉(임권택)	(30점) (1점) (2점)
	〈감자〉(변장호)	(2점)
	〈동녀〉(강대선)	(1점) (1점)
	〈바람부는 날에도 꽃은 피고〉(김정옥)	(15점)
1988년	〈손에 손잡고〉(임권택) *uncredited	(30점) (2점) (3점) (1점)

부록 3 필모그래피

1989년 〈크라이막스 원〉(엄정선)
〈상처〉(곽지균)
〈밀월〉(변장호) (2점)

1990년 〈젊은 날의 초상〉(곽지균) (18점) (1점) (1점)
〈장군의 아들〉(임권택) (43점) (1점)
〈꼴찌부터 일등까지 우리반을 찾습니다〉(황규덕) (1점) (2점)

1991년 〈장군의 아들 2〉(임권택) (56점)
〈개벽〉(임권택) (100점) (1점) (2점)

1992년 〈이혼하지 않은 여자〉(곽지균) (1점)
〈장군의 아들 3〉(임권택) (2점)

1993년 〈참견은 노 사랑은 오예〉(김유진)
〈서편제〉(임권택) (113점) (3점) (2점) (1점)

1994년 〈태백산맥〉(임권택) (2점) (1점)

부록 3 필모그래피

1995년 〈사랑의 묵시록〉(김수용) (67점)
1996년 〈본투킬〉(장현수) (2점)
1997년 〈아버지〉(장길수)
1998년 〈실락원〉(장길수)
1999년 〈침향〉 (김수용) (1점)
2000년 〈춘향뎐〉(임권택) (17점) (1점)
2002년 〈취화선〉(임권택) (54점) (1점) (4점) (3점) (1점) (1점) (3점)
2004년 〈하류인생〉(임권택)
2006년 〈천년학〉(임권택) (25점) (2점) (1점) (4점)

부록 4 수상 내역

1970년	제6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기술상 〈지하실의 7인〉
1971년	제6회 영화예술상 촬영상 〈화녀〉
	제10회 대종상 영화제 촬영상 〈화녀〉
1972년	제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기술상 〈화녀〉
	제15회 부일영화상 촬영상 〈화녀〉
1974년	제13회 대종상 영화제 촬영상 〈국회푸락치〉
1977년	제13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기술상 〈가위 바위 보〉
	제23회 아시아영화제 촬영상 〈문〉
1978년	제17회 대종상 영화제 촬영상 〈과부〉
	한국영화기자회 제정 "78년도 영화상" 촬영상 〈화려한 외출〉
1980년	제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촬영상 〈사람의 아들〉
1981년	제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촬영상 〈만다라〉
1982년	제21회 대종상 영화제 촬영상 〈만추〉
	제1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기술상 〈만다라〉
1983년	제22회 대종상 영화제 촬영상 〈안개마을〉
1987년	제7회 하와이국제영화제 촬영상 〈황진이〉
1988년	제24회 한국일보 연극영화상 촬영상 〈감자〉
	제24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기술상 〈아다다〉
1991년	제29회 대종상 영화제 촬영상 〈젊은 날의 초상〉
	제12회 청룡영화상 촬영상 〈개벽〉
1992년	제1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촬영상 〈개벽〉
1993년	제31회 대종상 영화제 촬영상 〈서편제〉
	제14회 청룡영화상 촬영상 〈서편제〉

부록 4 수상 내역

	제13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촬영상 〈서편제〉
	제2회 대구영화제 달구벌영화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
	한국국악협회 감사패
1994년	제5회 이천춘사대사영화제 촬영상 〈태백산맥〉
	자랑스런 서울시민상
1997년	제18회 청룡영화상 특별공로상
2000년	제8회 이천춘사대사영화제 촬영상 〈춘향뎐〉
	제20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촬영상 〈춘향뎐〉
	부관문화훈장
	제1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이필우 기념상
2002년	제23회 청룡영화상 촬영상 〈취화선〉
	제3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촬영상 〈취화선〉
	제10회 이천춘사대사영화제 춘사 탄생 100주년 기념 공로상
	제2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촬영상 〈취화선〉
	제1회 대한민국 영화대상(MBC영화상) 공로상
	제1회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문화인상
	제3회 한국영화문화상 촬영상 〈취화선〉
2005년	단성사 개관 100주년 기념 100인 공로상
2011년	제60회 서울시문화상
2013년	제50회 대종상 영화제 영화발전공로상
2014년	제34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공로영화인상
2017년	제37회 황금촬영상 공로상

참고문헌

1. 구술채록문

이정아, 『2017년 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생17-4 〈생애사〉 정일성』, 한국영상자료원, 2017.

2. 단행본

김경욱 외, 『격조의 예술가 파격의 모험가 정일성』, 부산국제영화제, 2019.

김미현 외, 『한국영화기술사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2.

3. 신문기사

「혹세의 사교 태극도의 정체」, 『동아일보』 1958.08.17., 5면.

「58년도 관객동원수로 본 내외영화 베스트 텐」, 『동아일보』 , 1958.12.24., 4면.

「〈군도〉 활극조의 번안 멜로드라마」, 『조선일보』 1961.03.08., 4면.

「오락이 되는 활극 군도」, 『경향신문』, 1961.03.11., 4면.

「극영화 삼제, 분장 말타기 액숀」, 『동아일보』 1961.10.08., 4면.

「취미로서의 영화제작 내건 한국소형영화동호회 발족」, 『동아일보』 1970.07.25., 5면.

「문화행사」, 『동아일보』, 1970.09.23., 5면.

「문예, 실화 영화 각광」, 『동아일보』 1977.09.19., 5면.

「"문화77"의 얼굴 6. 영화」, 『조선일보』 1977.12.17., 5면.

「14개 영화사들 고민, 방화 발붙일 극장이 없다」, 『동아일보』 1978.07.22., 5면.

「그늘 속에서도 긍지를 갖고...대중문화의 산파 2 일요연재」, 『조선일보』 1979.01.28., 5면.

「가을비 우산속에」, 『조선일보』 1979.08.26., 5면.

「을화… 무속과 기독교의 갈등」, 『동아일보』 1979.09.29., 5면.

「올해 대종상 향방은」, 『경향신문』 1982.12.02., 12면.

「대종상 극영화 14편 등 20편 경쟁」, 『경향신문』 1982.12.07., 7면.

「영화계 〈황진이〉 파문」, 『조선일보』, 1986.09.28., 7면.

「영화인 97명 시국 성명」, 『동아일보』 1987.05.12., 7면.

「올림픽 기록영화 두 편 선뵈」, 『한겨레신문』 1989.10.29., 7면.

「세트제작비4억 장군의 아들2 30년대 종로 재현」, 『조선일보』 1991.04.12., 11면.

「한국남자와 결혼 고아 3000명에 사랑의 손길 일 여인 '윤학자 여사 일대기' 영화화」, 『동아일보』 1994.08.05., 19면.

「나의 젊음 나의 사랑- 영화촬영감독 정일성 (4) 태풍 '사라'도 못말린 열정」, 『경향신문』 1996.04.15., 31면.

「나의 젊음, 나의 사랑-영화촬영감독 정일성 (6)) 수술 뒤 회복기의 고통 속에서」, 『경향신문』 1996.04.17., 31면.

「한일합작 휴먼 드라마 사랑의 묵시록 일서 상영」, 『동아일보』 1997.09.19., 19면.

「한일공동제작영화 '사랑의 묵시록' 국내 수입 허가」, 『동아일보』 1998. 10. 28., 17면.